



공공영역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⑥ 인터뷰어 최용준 객원시진 장영규 번역 최희정

한동대학교 최용준 교수(이하 최)가 벨기에 ETF의 패트릭 놀렌스(Patrick Nulens, 이하 패트릭) 총장을 만났다.

Question 최용준(이하 최) 패트릭 놀렌스 교수님, 간단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nswer 패트릭 놀렌스(이하 패트릭) 저는 벨기에의 대학 도시 루벤(Leuven) 출신으로 10대를 보내고 있는 세 아들의 아버지이며, 브뤼셀에 위치한 복음주의신학원(ETF,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Leuven)에서 기독교 윤리와 교리를 가르치면서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Question 최 그렇군요. 벨기에 ETF의 총장으로 주로 어떤 시역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nswer 패트릭 학교 전반의 리더십 활동이 저의 주요 사역입니다. 유럽 내 기독교인들과 학교 사이의 연결고리로, 또한 정부와 학교 사이의 주요한 관계를 다지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대학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자금 지원을 일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ETF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설명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매일 학교의 경영진과 재정 디렉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Question 최 한국에서는 좀 생소합니다. 한국의 학자들과 월드뷰 독자들에게 ETF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패트릭 ETF는 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는 대학원으로, 초교파적 개혁복음주의 신앙을 토대로 합니다. 매우 전형적인 신학원이기도 한데, 이는 신학과 종교학을 다루는 학교로써 유럽 대학 제도 내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학생 중 30~40퍼센트는 서로 다른 교단에서 왔고, 종교, 인문,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회자만 배출하는 신학교는 아닙니다. 우리의 교수법은 연구(research)에 기초해 있는데, 수업의 35~40퍼센트는 신학과 종교학에 관한 진정한 연구를 요구하며 50~60퍼센트는 교육에 할애합니다.



Question 최 유럽의 중심부에 ETF를 설립하신 데는 특별한 비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Answer 패트릭 학문적 비전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지적 이해를 위한 기본요소였던 유럽 수도원 대학의 오랜 전통 이조, 계몽주의 시대 이후 유럽의 역사에서 이 전통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전통을 다시 복원하는 동시에 유럽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한때 세속화의 물결이 지냈던 유럽은 다시 조금씩 복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매우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적 방식과 대학을 배경으로 유럽의 기독교적 근간을 새롭게하고자 합니다.



Question **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페트릭 지난 해에는 자유주의 경제와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관한 학술의 날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담 스미스에 관한 신학적 성찰과 자기 이익(Self-interest)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2주 후에는 리더십에 서의 영성과 혁신에 관한 회의가 열리는데, 심리학자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하는 학제간 컨퍼런스입니다. 영성은 매우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는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영역에 우리가 기독교적 사고와 세계관을 펼치고 논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Question **최** 기독교 윤리에 관한 책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이와 관련이 있나요?**

Answer 페트릭 처음에 제안 받은 것은 네덜란드어로 기독교 윤리에 관한 새로운 교재를 집필하고 네덜란드의 목회자 혼런 및 대학교에서 사용할 철학 윤리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번역본은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전문기인 동료와 함께 원서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Matrix of Ethics'라는 윤리에 관한 개론서를 출간했습니다. 리더십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리더십 연구분야와 매우 관련이 많은 책이지만 충분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영역에 보다 초점을 맞춘 책을 집필할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다 폭넓은 영역, 즉 문화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Question **최** 특별히 교수님의 전공이 리더십을 연계한 기독교 윤리라고 들었습니다. 이 주제는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례로 교수님의 전공분야를 아시아적 맥락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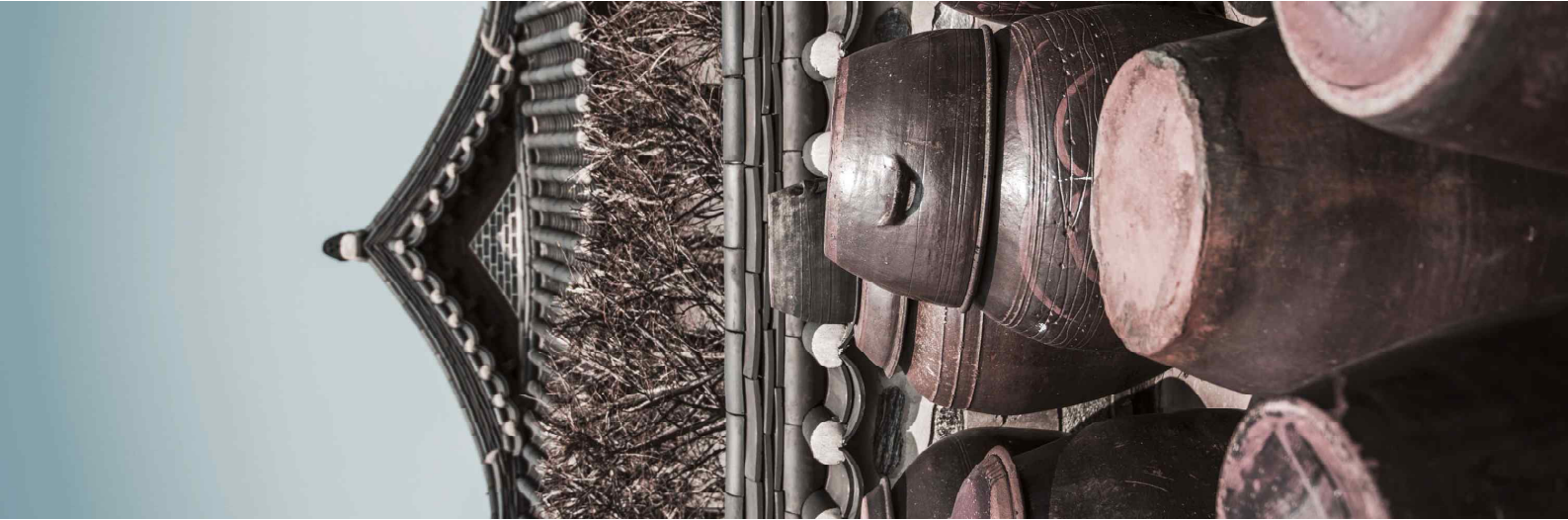
Answer 페트릭 이 학교의 총장으로서 저는 구약과 교회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윤리학 교수로 리더십 윤리와 비즈니스 윤리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의 신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리더십 및 윤리 연구소(ILE: Institute of Leadership and Ethics)를 브뤼셀 지역에 설립한 이유도 이 때문이죠. 우리는 리더십 및 윤리 연구소를 통해 정체를 입안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적 관점을 통한 윤리적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환경, 은행, 기독교계 등 다양한 한 영역에서 종사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공공영역에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가를 세계를 더 잘 준비하며, 현대 문화가 주는 도전들 신학 및 기독교적 사고로 통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uestion **최** 이제 지경을 아시아까지 확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Answer 페트릭 ETP는 이미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명 이상이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외국학생들 중 대부분은 유럽 출신이며, 북미주에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권 학생들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아시아권 학자들과 학생들을 맞이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ETP는 학문적으로 준비되고 적절한 위상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 왔으며, 이제 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권 학생들 중 특별히 유럽의 역사와 기독교, 고전 신학, 그리고 유럽 내 선교 이슈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이 ETP에 관심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Question **최** <월드뷰>가 갖는 주된 관심사는 기독교 세계관을 비즈니스 영역과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및 윤리 연구소는 이런 면에서 본지와 많은 부분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군요.

Answer 페트릭 맞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엔지니어 영역 등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상하게도 개인의 삶을 신학적 성찰을 통해 살펴보면 때론 실용주의적이거나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신앙에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과학, 사회과학 또는 법의 영역과 관련해서도 신학적 성찰을 위한 적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뤼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나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리더십 및 윤리 연구소(ILE)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설립된 것입니다.



Question ❖ 한국에 처음 방문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인상이 어떠신지요?

Answer 페트리트 단순한 예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 교회가 가진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다.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이며, 가난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자 애쓰는 비전이 놀라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써 전지구적 필요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EITF 역시 희망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를 향한 나이의 기도와 바램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유럽이 한국 교회와 더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럽의 기독교적 전통이 약화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회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 EITF와 한국의 신학교 및 대학들간 국제 협력 관계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앞으로의 양자간 교류 및 협력에 대해 어떻게 보시지요?

Answer 페트리트 한국 학생들 중 신학에 대한 유럽의 고전적 접근 방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EITF의 신학 석사 과정 및 박사 과정을 추천합니다. 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노후유를 EITF에 와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외에 한국의 선교사들도 와서 자연스럽게 아시아와의 기교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가능하다면 교회가 그들을 파송해서 우리 학교를 돕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Question ❖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진공이 통합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학자들에게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

Answer 페트리트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대한 철학적 모델을 찾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철학적 모델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 중 지구온난화와 생태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태학은 경제, 철학 그리고 창조와 인류학 측면에서 신학적 부분도 고려하게 됩니다. 기아 문제도 다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아 문제도 성경적 사고와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구약의 선지서들과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신약의 아고보서를 살펴보면 우리는 기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는 않지만 분야도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신학은 교회와 목회자들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목회에서는 물론, 바로 전 세계적 이슈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문제에 대해 그들의

잘못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쪽 모두를 봐야 합니다.

Question ❖ 벨기에에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까?

Answer 페트리트 네덜란드에는 몇 개가 있는데 종합대학교가 아닌 단과 대학 수준입니다. 반면 벨기에에는 기독교 대학이 진무합니다. 큰 카톨릭 대학이 하나 있지만 기독교 대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교회로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학, 심리학 등 수많은 학문 분야와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교 지와도 같은 벨기에에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Question ❖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통합의 이슈와 기독교 교육에 관한 교수님의 비전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Answer 페트리트 먼저 우리의 동력원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어야 합니다. 학문과 이론적 도전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보이신 사랑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통합된 지식이 사랑이라는 제일 큰 계명 하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Question 최 맞습니다. 그것은 북한과의 관계에도 연결되는 것 같은요,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며 화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 때로 분열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과 벨기에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nswer 페트릭 벨기에에서 배울 점은 작은 영토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협상과 타협의 기술 역시 필요합니다. 타협은 종종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타협이 아팔로 사량과 배려를 통해 이루어 내

는 것이며, 공익을 위하는 길입니다. 유럽연합도 이와 매우 유사한 경우입니다. 타협의 과정이며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일들이죠.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남한의 현 자세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북한의 무제한 도발적 행위에도 남한이 계속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외부의 공격적인 태도에 맞서 타협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고, 또 벨기에를 통해 한국도 배울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Answer 페트릭 그렇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남한의 현 모습은 훌륭한 본보기라고 생각하며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점을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역시 자신만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한의 정책을 조심스럽게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논제이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Question 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와 협력을 맺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사역과 ETF,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Answer 페트릭 감사합니다.

복음주의신학원(ETF,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Leuven) 소개
벨기에 복음주의신학원(ETF,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Leuven)은 성경적 리더를 세운다는 비전 아래 벨기에의 역사적인 내화도시 루벤에 세워졌다. 유럽의 상황과 문제들을 성경 및 신학적 통찰로 인식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실제적인 사역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최종준 한동대 교수이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며 VETW(베나다 베루바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및 ETF(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 객원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 신학원(ETF) 자유대학원을 거쳐 남아공 포체프스트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쾰른한성교회, 브라우셀한성교회, 브라우셀한성교회(ETF)를 역임하며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상상해야 할 것들
상상하라

창조와 혁신을
부르짖는 문화 속에서
진정 우리가
상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